



Kashif, Queen Symphony and Beyond

# 이.질, 라이피라

2026. 4. 16.(목) 오후 7시 30분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 사월, 다시 피다

<b>프롤로그</b>	<b>슬픔의 날</b> Pieśni żałosnych	구레츠키, 심포니 3번 "슬픈 노래" 3악장 M. Sop. 김선정
<b>1부</b>	<b>기억하라 그날</b> Recordare dies illa	카슈프, 쿤 심포니 1악장
<b>2부</b>	<b>영원한 빛</b> Lux aeterna	카슈프, 쿤 심포니 3악장 Vn. 정하나   Vc. 박건우
<b>3부</b>	<b>1장 눈물의 날, 지나가리</b> Lacrimosa, dies illa	
	<b>2장 정의의 날, 곧 오리라</b> Dies irae, dies illa	
	<b>3장 그날이 오리니</b> Misericordia, dies illa	
	<b>4장 이겨내리라</b> Libera me de morte	카슈프, 쿤 심포니 5악장
<b>4부</b>	<b>1장 평화의 날, 다시 피어나리</b> Dona nobis pacem	
	<b>2장 한 바람으로 남아</b> In paradisum, vita aeterna	카슈프, 쿤 심포니 6악장
<b>에필로그</b>	<b>사랑이 내게 말하는 것 - 그날이 오면</b> Was mir die Liebe erzählt - 그날이 오면	말러, 심포니 3번 6악장 피날레 문승현, '그날이 오면'

- 중간 휴식 없음 -

## 표지 그림

### 「사월, 다시 피다」

이 그림은 특별히 본 음악회를 위해 그린 것으로  
꽃봉오리를 이루는 한 잎 한 잎이  
이번에 연주하는 노랫말이다

### 봉초 이상호

2026년 1월  
화선지에 채색먹물 57cm X 57cm

# 프롤로그

## 슬픔의 날 Dzień żałosny

보고픈 내 아들, 너 어디에 있니?  
이런 끔찍한 일 누가 저질렀니!

이 사악한 자들, 말을 왜 못하나  
소중한 내 아들 왜 죽어야 했나?

자랑스런 너의 모습 떠올리려 해도  
지친 나의 눈은 이전 보이지 않네

흘린 눈물 모아 바다가 된다 해도  
떠난 나의 아들 돌아오지 않네

차가워진 너의 침대도 너를 위해 펴고  
혹시 모를 무덤조차 너를 위해 파도  
아무 소용없네

아무도 모르네  
어둔 구렁텅이에 버려져있는지  
차디찬 물속에 홀로 떠도는지

하늘 위의 새야, 노래 불러다오  
우리 예쁜 아가 찾을 수 있도록

들판 위의 꽃들아, 환하게 피어다오  
우리 예쁜 아가 고이 잠들도록

이 사악한 자들, 말을 왜 못하나  
소중한 내 아들 왜 죽어야 했나!

Kajze mi sie podziół mój synocek miły?  
Pewnie go w powstaniu złe wrogi zabiły!

Wy niedobrzy ludzie, dlo Boga świętego  
Cemuście zabili synocka mojego?

Zodnej jo podpory juz nie byda miała  
Choć bych moje stare ocy wyplakała

Choćby z mych łez gorkich drugo Odra była  
Jesce by synocka mi nie ożywiła

Lezy on tam w grobie  
A jo nie wiem kandy  
Choc sie opytuja miedzy ludzmi wsandy

Moze nieboroczek lezy kaj w dołecku  
A mógłby se lygać  
Na swoim przypiecku

Ej, ćwierkeycie mu tam, wy ptosecki boze  
Kiedy mamulicka znaleźć go nie moze

A ty, boze kwiecie, kwitnijze w około  
Niech sie synockowi choć lezy wesolo

Wy niedobrzy ludzie, dlo Boga świętego  
Cemuście zabili synocka mojego!

# 1부

## 기억하라 그날 Recordare dies illa

[오케스트라]

### RADIO GA GA

부디 흩어지는 소리로 사라지지 마십시오  
무심한 세상의 배경으로 남지도 마십시오

저들은 그대를 모르고, 외면하다가  
빈자리가 되어서야 탓할 뿐입니다

그대들의 시간, 그대들의 힘은 분명했으나  
가장 찬란한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So don't become some background noise  
A backdrop for the girls and boys

Who just don't know, or just don't care  
And just complain when you're not there

You had your time, you had the power  
You've yet to have your finest hour

[오케스트라]

### THE SHOW MUST GO ON

텅 빈 공간  
-우린 무엇을 위해 사는가

결국 잊히고 버려질 터  
-우리는 그 끝을 이미 알고 있으니

그럼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무얼 찾고 있는지 아는 자 있는가?

또다른 영웅, 또다른 무심한 범죄  
가려진 장막 뒤, 소리없는 연극 속에서

끝까지 버텨야 한다는데  
이걸 견뎌낼 사람이 과연 있을까?

Empty spaces  
-What are we living for

Abandoned places  
-I guess we know the score

On and on,  
Does anybody know what we are looking for?

Another hero, another mindless crime  
Behind the curtain, in the pantomime

Hold the line,  
Does anybody want to take it anymore?

[합창]  
**기억하라 그날!**

[오케스트라]  
**ONE VISION**

하지만 차가운 바람이 불고  
검은 비가 내렸지  
그제야 내 가슴은 알게 되었어  
보라고, 저들이 나의 꿈에 무슨 짓을 했는지

But a cold wind blows  
And a dark rain falls  
And in my heart it shows  
Look, what they've done to my dreams

그러니 내게 손을 주세요  
그대의 마음을 주세요  
난 준비됐어요  
갈 길은 하나 뿐

So give me your hands  
Give me your hearts  
I'm ready  
There's only one direction

[합창]  
**오, 내 사랑  
널 잊지 않으리라  
오, 결코 못 잊을 내 사랑!**

[오케스트라]  
**I WAS BORN TO LOVE YOU**

난 당신을 사랑하려고 태어났어요  
내 심장의 모든 박동으로 당신을 사랑하려고  
  
그래요, 난 당신을 돌보려고 태어났어요  
내 인생의 모든 하루들로 당신을 돌보려고

I was born to love you  
With every single beat of my heart  
  
Yes, I was born to take care of you  
Every single day of my life

[합창]  
**기억하라 그날!**

## 2부

### 영원한 빛 Lux aeterna

[오케스트라]  
**WHO WANTS TO LIVE FOREVER**

누가 영원히 살길 바라나요?  
누가 감히 영원히 사랑하길 바라나요?

Who wants to live forever?  
Who dares to love forever?

우리의 사랑이 죽어야만 하는 그 때

When love must die

당신의 입술로 내 눈물을 보듬으면  
당신의 손끝으로 내 세계를 쓰다듬으면

But touch my tears with your lips  
Touch my world with your fingertips

우리는 영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영원히 사랑할 수 있어요

And we can have forever  
And we can love forever

우리의 오늘이 곧 영원이에요

Forever is our today

# 3부

## 1장 : 눈물의 날, 지나가리

Lacrimosa, dies illa

[합창]

눈물의 날, 그날  
눈물의 그날, 지나가리

[오케스트라]

### BOHEMIAN RHAPSODY (Ballade)

엄마,  
엄마를 울게 하려는건 아니었어요

Mama,  
Didn't mean to make you cry

혹시 내가 내일 돌아오지 못해도  
그저 꾀꾀, 꾀꾀이 살아가세요

If I'm not back again this time tomorrow  
Carry on, carry on

진짜 아무 일도 없었던 듯

As if nothing really matters

[오케스트라]

### BOHEMIAN RHAPSODY (Scaramouche - Opera section)

한 인간의 비루한 속내가 보인다  
광대여, 어리석은 광대여!  
요란한 춤판이라도 벌일 셈인가?

I see a little silhouetto of a man  
Scaramouche, Scaramouche!  
Will you do the Fandango?

# 3부

## 2장 : 정의의 날, 곧 오리라

Dies irae, dies illa

[오케스트라]

### WE WILL ROCK YOU

너, 초라해진 늙은이여  
이제와서야 비굴한 눈으로  
평안을 구걸하다니  
네 얼굴은 추악하고, 거대한 치욕이니  
마땅히 네가 있어야 할 곳으로 보내주겠다  
우리가, 우리가 너를 무너뜨리리라!

Buddy, you're an old man, poor man  
Pleading with your eyes,  
Gonna make you some peace someday  
You got mud on your face, big disgrace  
Somebody better put you back into your place  
We will, we will rock you!

[합창]

심판의 날, 그날  
다가오는 그날!  
정의의 날, 그날  
곧 오리라, 그날!

# 3부

## 3장 : 그날이 오리니

Misericordia, dies illa

[합창]  
 엄마,  
 이제는 울지마!  
 그날이 오리니  
 반드시, 반드시  
 그날 곧 오리니!

## 4장 : 이겨내리라

Libera me de morte

[오케스트라]  
**WE ARE THE CHAMPIONS**  
 벋들이여, 우리가 승리합니다  
 하여 우리는 끝까지 싸워갈 것입니다

[합창]  
**이겨내리라, 이겨내리라**  
 참고, 참고  
 또 참고, 참아  
 끝내 이기리라!

We are the champions, my friends  
 And we'll keep on fighting 'til the end

# 4부

## 1장 : 평화의 날, 다시 피어나리

Dona nobis pacem

[합창]  
**평화의 날, 그날!**

[오케스트라]  
**WHO WANTS TO LIVE FOREVER**

누가 영원히 살길 바라나요?  
 누가 감히 영원히 사랑하길 바라나요?  
 우리의 사랑이 죽어야만 하는 그 때  
 당신의 입술로 내 눈물을 보듬으면  
 당신의 손끝으로 내 세계를 쓰다듬으면  
 우리는 영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영원히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의 오늘이 곧 영원이에요

Who wants to live forever?  
 Who dares to love forever?  
 When love must die  
 But touch my tears with your lips  
 Touch my world with your fingertips  
 And we can have forever  
 And we can love forever  
 Forever is our today

[합창]  
**엄마!**  
**평화의 그날,**  
**다시 피어나리,**  
**또 다시 피리라!**

# 4부

## 2장 : 한 바람으로 남아 In paradisum, vita aeterna



[합창]

한 바람으로 남아  
영원히 함께 하리  
나의 바람...

[오케스트라]

BOHEMIAN RHAPSODY (Ending)

나는 정말 괜찮아요  
어차피 바람은 부니까...

Nothing really matters to me  
Anyway the wind blows...

# 에필로그

## 사랑이 내게 말하는 것 - 그날이 오면 Was mir die Liebe erzählt

[오케스트라]

말러 심포니 2번, 부활의 나팔소리  
말러 심포니 3번, 6악장 피날레 '사랑이 내게 말하는 것'

[합창]

정의의 물결 넘치는 꿈

드넓은 평화의 바다에  
오랜 고통 다 한 후에  
내 형제 빛나는 두 눈의 뜨거운 눈물  
고된 땀방울  
한줄기 강물로 함께 흘러

한밤의 꿈은 아니리

그날이 오면  
내 형제 그리운 얼굴들  
그 아픈 추억도  
아 짧았던 내 젊음도  
헛된 꿈이 아니었으리

그날이 오면, 정의의 그날!

## '슬픔의 날' 작곡가 인터뷰

(상략)

### [구레츠키]

여기서 가까운 곳에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다. 나는 어릴 적부터 이곳에 흠어져 있는 게슈타포 수용소를 보며 자랐다. 수용소에 갇힌 어린 소녀가 벽에 새긴 글을 보라. 우는 어머니를 달래면서 성모 마리아에게 자신들을 버리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다. 또한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통절한 슬픔이 서려 있다. 이들의 눈물이 바로 슬픔의 강이다. '슬픔의 날'은 슬픔의 강이 흐르는 소리라 할 수 있다.

Q. 하지만 그것은 과거의 일이다. 과거의 슬픔보다 현재의 슬픔을 드러내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작업이 아닌가?

### [구레츠키]

흐르는 강을 자를 수 있다면 당신의 말이 옳다. 하지만 강은 끊임없이 흐른다. 흐르지 않는 것은 이미 강이 아니기 때문이다. 과거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강은 현재를 넘어 미래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보스니아 내전의 비극을 보라. 죽고 죽이는 아비규환을 인종의 문제라 생각하는가? 천만에, 그것은 욕망의 비계 덩어리로 숨 쉬고 있는 인간의 문제다. 과거의 슬픔은 곧 현재와 미래의 슬픔이다. 다만, 그 슬픔의 형태가 다를 뿐이다.

Q. 그 슬픔의 강가에서 예술가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구레츠키]

예술가란, 살아남은 자의 형벌을 가장 민감히 느끼는 사람이다. 살아있다는 것은 축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형벌이기도 하다. 빛은 어둠이 있어야 존재한다. 축복과 형벌은 이 빛과 어둠의 관계다. 그런데, 예술가는 축복보다 형벌에 민감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형벌을 견뎌내야 한다. 단언컨대, 견디지 못하는 자는 예술가가 아니다. 슬픔의 강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끊임없이 흐르고 있지만, 그 강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이 강이 있음을 일깨우는 사람이 바로 예술가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 [구레츠키]

예술가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빛은 슬픔의 강 너머에 있다. 이제 내가 당신들한테 질문하고 싶다. 슬픔의 강은 어떻게 건너는가?

## 카쉬프의 '퀸 심포니'

프레디 머큐리가 자신이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라는지에 대해 한 말이 있다.

"내 음악을 당신 마음대로 해도 좋지만, 지루하게 만들지는 마세요"

이 말은 머큐리가 자신의 음악이 어떤 방식으로든 변화하거나 확장되는 것을 원했고, 절대 지루하지 않은 생명력을 유지하기를 바랐다는 뜻으로 널리 인용된다.

틀가 카쉬프의 「퀸 심포니(Queen Symphony)」는 퀸의 음악을 교향적 구조로 재창조한 작품으로, 대중음악과 고전음악이 각 문법의 충돌이 아니라 어법의 나눔으로 만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카쉬프는 퀸의 음악을 오케스트라의 문법으로 옮기기 위해 원곡의 리듬·화성·선율을 기계적으로 확대하지 않았다. 또한 일반 메들리처럼 단순히 곡을 모아 시간순으로 편곡한 것이 아니라, 서사적 전개를 기준으로 곡들을 재배열하고, 서로 다른 노래들을 하나의 유기적 흐름 속에 결속했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의 등장으로 외면받는 라디오를 끝까지 잊지 않겠다'라는 'Radio Ga Ga'의 멜로디를 레퀴엠 전례문 '기록하소서 (Recordare)'의 모티프로 차환하는 식으로, 퀸의 핵심 주제와 정서를 추출해 새로운 서사로 교향곡이자 극음악으로 직조했다.

퀸 심포니는 구조적으로 레퀴엠 서사이지만, 관통하는 정서는 애도와 절망이 아니라 기억과 소망이다. 오케스트라는 특유의 소리 밀도로 기억을 되짚으며 서사를 이어간다. 합창단은 그 서사에 따라 아들이 되기도 하고, 엄마가 되기도 하고, 보편인간으로서 유연하게 부응하거나 역동적으로 대응하기도 하면서 지금 여기 부재하는 자와 존재하는 자를 아울러 보듬는다. 오케스트라와 합창은 각자 다른 모티프를 연주하지만 서서히 어우러지는 변증법적인 대화를 나누며 공통의 소망을 향해 나아간다.

원곡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관현악만이 구현할 수 있는 음향의 깊이로 새로운 서사를 써낸 이 곡은 '훌륭한 음악이란 무엇인가'라는 오래된 물음에 대한 두가지 대답이다. 첫째는, 퀸처럼 강력한 사유를 지닌 자유로운 노래는 레퀴엠과 교향곡 형식이라는 고전적이고 엄격해 보이는 틀 안에서 머큐리의 우려가 무색하리만큼 오히려 자신의 생명력을 더욱 선명히 드러낸다는 것이고, 둘째는, 카쉬프처럼 삶의 근본을 되돌아 보게끔 정교하게 직조한 서사음악은 그 모티프가 아무리 대중적인 것이어도 숭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 - 인용곡 -

- RADIO GA GA
- THE SHOW MUST GO ON
- ONE VISION
- I WAS BORN TO LOVE YOU
- WHO WANTS TO LIVE FOREVER
- BOHEMIAN RHAPSODY
- WE WILL ROCK YOU
- WE ARE THE CHAMPIONS

## 사랑이 내게 말하는 것 - 그날이 오면

이 에필로그는 말러가 작곡한 '사랑이 내게 말하는 것'과 문승현이 작곡한 '그날이 오면'의 멜로디 시작 부분이 구조적, 선율적으로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만들어졌다. 하지만 더 깊은 유사성은 정서의 맥락에 있다. '오랜 기다림'과 '꿈'이다.

세상에서 가장 긴 교향곡이라고 불리는 교향곡 3번을 쓴 말러는 여섯 악장에 각각 이름을 'X가 내게 말하는 것'이라고 붙였었다. 1악장부터 차례로 자연, 꽃, 동물, 인간, 천사, 사랑 순이다. '자연이 말하는 것'은 야만적이라 할 만큼 정신 사납다. '인간이 말하는 것'은 니체의 시를 인용했는데, 그 분위기가 어둡고 음울하기 그지없다. 또한 '천사가 말하는 것'은 미취학 아이들도 주일학교에서 노래하기 싫어할 정도로 그 가사 내용이 유치하기 이를 데 없다. 이 교향곡에선 이런 식으로 6악장 전까지 물리적 시간이 약 1시간 20분이나 흘러간다. 그리고나서야 드디어 '사랑'이 내게 말을 건넨다.

우리는 마지막에 이 '사랑'이 아무런 가사도 없이 내게 말하는 것을 듣고 송고한 감정으로 가슴이 터질 듯하다. 미술에 압도적인 공간 크기로 인한 송고가 있다면, 음악에는 압도적인 시간 길이로 인한 송고가 있다. '사랑이 내게 말하는 것'은 단순한 아름다운 멜로디와 근사한 화성의 조합이 아니라 긴 시간을 견디고 참아온 자에게 말러가 주는 송고한 선물이다. 여태껏 견디고 참아온 긴 물리적 시간은 사랑이 내게 말하는 순간 '진짜가 아닌' 시간으로 변해버리고 새로운 '진짜' 시간이 탄생한다.

### 오랜 기다림의 끝, 그날이 오면

인간이 최초로 '진짜가 아님'을 경험한 것은 무엇일까. 즉 가짜라는 말은 최초로 어떻게 생겨났을까. 아마도 첫 '꿈'을 꾸고 깨어난 이후였을 것이다. 자신이 꾸는 꿈을 '가짜'라고 부른 이후에야, 현실을 '진짜'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셈이다.

그런데 꿈은 가짜였지만, 현실이 고통스러울수록 그 말은 점점 변해갔다. 환상이란 뜻을 품더니, 나아가서 희망이란 뜻을 품고, 결국 이상이란 뜻이 되어버렸다.

가짜였던 꿈이란 말이 플라톤의 이데아나 예수의 천국처럼 오히려 진짜가 된 것이다.

문승현의 '그날이 오면'은 이 진짜와 가짜 꿈을 확신하며 구분한다.

한밤의 꿈은 아니리  
오랜 고통 다 한 후에  
내 형제 빛나는 두 눈에  
뜨거운 눈물들  
한줄기 강물로 흘러,  
고된 땀방울 함께 흘러  
드넓은 평화의 바다에  
정의의 물결 넘치는 꿈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내 형제 그리운 얼굴들  
그 아픈 추억도  
아 짊었던 내 젊음도  
헛된 꿈이 아니었으리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그런데 꿈에만 집중하면 막상 '그날'이 무슨 날인지 금방 떠올리기 어렵다.

그래서 다시 피는 4월 오늘, 우리는 1연을 거꾸로 하나하나 되짚어 가며 말러의 멜로디에 얹어 천천히 노래한다.

한 꿈을 꾸다.  
그 꿈은 정의의 물결이 넘치는 꿈이다.  
그 물결은 드넓은 평화의 바다에서 넘실거린다.  
그 평화의 바다는 한줄기 강물로 흘러와 이루어졌다.  
그 강물은 고된 땀방울과 뜨거운 눈물들로 만들어졌다.  
그 눈물은 오랜 고통 받은 내 형제의 두 눈에서 나왔다.  
그런데 고통에 지쳤음에도 그 두 눈은 찬란히 빛난다.

이것이 그저 한밤에 잠자다가 꾸는 헛된 가짜 꿈인가.  
아니, 이것은 내 젊음을 다 바쳐 꿈꾸는 진짜 꿈이다.

'정의'의 그날이 오면,  
그리워할 수 밖에 없는 아픈 추억도,  
또한 나의 짊었던 젊음도  
헛된 꿈이 아니었으리!

말러는 악장 제목인 'X가 내게 말하는 것'을 결국 출판악보에는 써넣지 않았는데, 그건 이 교향곡 자체에 아예 제목을 붙이지 않기로 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 원래 말러가 생각한 3번 교향곡의 제목은 '한여름 밤의 꿈'을 비튼 '한여름 낮의 꿈'이었는데 여러 이유로 결국은 제목을 붙이지 않기로 하고 말았다. 비록 이름은 사라졌을지언정, 그가 가슴에 품었던 것은 '꿈'이었다. 한밤의 꿈이 아닌, 진짜 꿈!

말러의 꿈, 오랜 기다림의 끝은 '사랑'이 내게 말하는 것이었다. 문승현의 꿈, 오랜 기다림의 끝의 그날은 '정의'의 물결이 넘치는 날이다. 버티며 견디는 시간에 한밤의 꿈은 아득할지 몰라도, 오랜 기다림으로 맞이하는 사랑이 내게 말하는 것은 결코 헛된 꿈이 아니다.

사랑은 나에게, 정의의 날을 꿈꾸라고 말한다.

# 세월호 12주기, 한 띠가 되어 한 띠를 두르다

180인의 소리로 전하는 위로

2026 ASAC 클래식 (안산 사운드뮤직아카데미)의 첫 번째 무대로  
봄 음악회 (사월, 다시 피다)를 선보이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

공연이 열리는 4월 16일은 안산이라는 도시에 각별한 의미를 지닌 날입니다. 오늘 공연장을 가득 채울 선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따뜻하게 남기를 바랍니다.

안산문화재단은 지휘자 구자범의 손끝을 통해, 쿼의 음악이 품은 감정과 서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 시대의 레퀴엠'으로 닿을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익숙한 선율 속에 새롭게 깃든 의미와 시선을 통해, 음악만이 건넬 수 있는 치유의 힘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무대를 위해 특별히 결성된 80인의 '봄 프로젝트오케스트라'와 100여 명의 '봄 프로젝트콰이어'가 하나의 목소리로 공연장을 가득 채웁니다. 저마다의 소리가 모여 이루는 풍성한 하모니는 단순한 규모를 넘어, 음악이 지닌 깊은 에너지와 감동을 고스란히 전해드릴 것입니다.

<사월, 다시 피다>의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봄날의 선율이 여러분의 마음을 따스하게 어루만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안산문화재단

메조 소프라노	김선정 국립·시립오페라단 주역가수
바이올린	정하나 인천시립교향악단 악장
첼로	박건우 Pos 트리오
지휘	구자범 안산 사운드뮤직아카데미 음악감독

## 봄 프로젝트콰이어 (가나다 순)

소프라노	김수현 고희경 곽은정 권지원 김민지 김백선 김형연 민다희 박채현 방혜원 성지연 여혜숙 오정현 오현아 유정현 윤경화 이민정 이상윤 이상라 이은혜 정솔이 정이제 주선영 진예진 한다혜 황미아
알토	고우리 권유빈 김정은 김현순 김효원 서미영 손수희 송진아 윤나래 이예지 이주희 이진영 이한솔 이혜근 임유빈 전수빈 정혜원 최현숙 한지혜 홍지희 홍혜경
테너	고원석 김경호 김동현 김두원 김범근 김병현 김선용 김양연 김현윤 류신기 박대열 박성빈 박인수 박정윤 박창우 신정우 오혜성 윤영규 이상진 이재욱 이준성 이혁재 조한규
베이스	김원희 김찬우 김찬현 박준영 사제환 손태준 송재혁 양재민 유동환 유영동 유원종 윤대근 윤성훈 이경환 이대훈 이수현 이승훈 이종건 이종성 장영기 전명석 정재원 조형준 조환용 최중환 최홍석 홍성호
피아노	박원후

## 봄 프로젝트오케스트라 (가나다 순)

제1바이올린	고찬미 박윤주 박지수 심지예 안은지 이수민 이은영 이현주 정민영 정하나(악장, 수석) 정한빛 조요한 한지에 홍경화
제2바이올린	강현욱 김안나 김진영 김채을 김희영 사윤빈 오민정 오서영 이재홍(수석) 이정현 이화진 장희영 지춘섭
비올라	강승주 김대건 김성윤 김유리 신지섭(수석) 안진웅 오상민 이한솔 현성 황승묵
첼로	김나원 김유진 김채경 박건우(수석) 유아람 윤성연 최고은 함수민
더블베이스	강모로 박소연 박재홍(수석) 오주영 장유리 한현성
플루트	이효연 정민규(수석) 최지은
오보에	김그린 서보영(수석)
클라리넷	노은솔 이선율(수석)
바순	김자성(수석) 이원림
호른	기현경 배송아(수석) 이석재 조상현 최지혜 황해리
트럼펫	김은성(수석) 김재현 김진겸 신승조
트롬본	안치정 윤병재 최정원(수석)
튜바	성의제
하프	박혜정
팀파니	황영광
타악기	박혜림 신주하 오정민 유효한 윤현준

지휘 어시스턴트 이승준

제작 | 멜팅코드 김민경 정승연  
진행 | 배재희 장민규

2026 ASAC 클래식

# 안산 사운드뮤직아카데미 연간 프로그램

## 봄 음악회

### 사월, 다시 피다

4월 16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 해돋이극장

지휘 구자범, 메조 소프라노 김선정,  
바이올린 정하나, 첼로 박건우,  
봄 프로젝트콰이어, 봄 프로젝트오케스트라

## 여름 렉처 콘서트

### 서곡이란 무엇인가

7월 25일 토요일 오후 3시 | 해돋이극장

지휘 구자범,  
봄 프로젝트오케스트라

## 가을 콘서트 렉처 1

### The Sound of Music

10월 28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 별무리극장

## 가을 콘서트 렉처 2

### The Sound of Silence

11월 25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 별무리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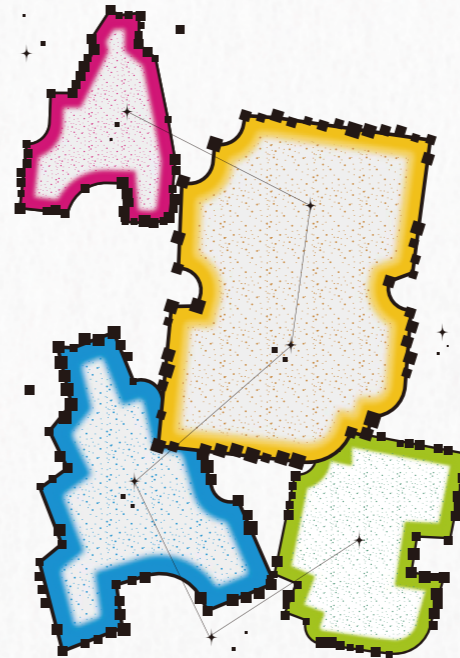
## 겨울 음악회

### Melancholy in Christmas

12월 23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 달맞이극장

지휘 구자범, 소프라노 오미선 외  
봄 프로젝트오케스트라

AnSan Arts Center



# ASAC

안산  
문화예술의  
전당 2026  
기획공연  
프로그램

해 해돋이극장 달 달맞이극장 별 별무리극장

3월	4월	5월		
<p>해</p> <p>공동기획 콘서트 &lt;진성씨&gt; 26. 3. 28.(토) 제작 선준커뮤니케이션</p>	<p>해</p> <p>봄 음악회 &lt;사월, 다시 피다&gt; 26. 4. 16.(목) 지휘 구자범</p>	<p>해</p> <p>연극 &lt;홍도&gt; 26. 5. 22.(금)-5.23.(토) 각색·연출 고선웅 제작 극공작소 마방진</p>	<p>해</p> <p>뮤지컬 &lt;할머니의 여름휴가&gt; 26. 5. 28.(목)-5. 30.(토) 원작 안병달 그림책 제작 (주)에이엠컬처</p>	
<p>해</p> <p>공동기획 뮤지컬 &lt;알파블록스&gt; 26. 7. 4.(토)-7. 5.(일) 제작 브러쉬씨어터</p>	<p>해</p> <p>여름 음악회 &lt;서곡이란 무엇인가&gt; 26. 7. 25.(토) 지휘 구자범</p>	<p>달</p> <p>판소리 동화콘서트 &lt;자라는 자라&gt; 26. 9. 10.(목)-9. 11.(금) 제작 창작국악그림 그림(the林)</p>	<p>달</p> <p>연극 &lt;레오폴트슈타트&gt; 26. 10. 16.(금)-10. 19.(월) 작 톰 스토파드 번역·연출 김연민 제작 (재)안산문화재단</p>	
<p>10월</p> <p>가을 콘서트 렉처1 &lt;The Sound of Music&gt; 26. 10. 28.(수) 구자범</p>	<p>11월</p> <p>가을 콘서트 렉처2 &lt;The Sound of Silence&gt; 26. 11. 25.(수) 구자범</p>	<p>달</p> <p>청소년 연극 &lt;유원&gt; 26. 11. 26.(목)-11. 27.(금) 원작및출판사『유원』, 창비 2020 제작 앤드씨어터</p>	<p>달</p> <p>뮤지컬 &lt;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gt; 26. 12. 4.(금)-12. 5.(토) 작 김하진 작곡 김혜성 제작 라이브(주)</p>	<p>달</p> <p>겨울 음악회 &lt;Melancholy in Christmas&gt; 26. 12. 23.(수) 지휘 구자범</p>

\* 상기 공연은 사정에 의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ASAC (아사)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기획프로그램 브랜드입니다.

안산 문화재단  
Ansan Cultural Foundation

안산문화예술의전당  
ANSAN ARTS CENTER

**NEW**  
ENJOY CLEAN TASTING WATER

**OKF**  
Premium Health Beverage

# Alkaline

# 9.5 pH

ELECTROLYTES

# WATER

ENHANCED MINERALIZE

MONDE SELECTION 2020 GOLD AWARD

BODY pH BALANCE

9.5 pH PERFECT HYDRATION

- pH Balance (Ionized to pH 9.5+)
- Electrolytes enhanced
- Hydration supplement
- Ultra purified
- Revitalize mineralize
- EVE VEGAN / FRANCE

A REFRESHING SOLUTION FOR HYDRATION

ASAC 연극
마방진 20주년 기념공연

박하선·예지원·정보석 출연!

2026년 가장 완벽한 <홍도>가 온다  
신파의 틀을 깨고 탄생한 가장 뜨겁고 세련된 비극!

화 류 비 련 극

# 홍도

각색/연출 고선웅

“미칠 것만 같아요  
무얼 잘못했죠?”

2026. 05. 22.(금)~ 05.23(토)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R석 7만원 D석 5만원 A석 3만원 | 초등학생이상관람가  
주최 예술경영지원센터 주관 안산문화재단, 극공작소 마방진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안산문화재단 고객지원센터 080-481-4000 N티켓 1544-1555



안 산 문 화 재 단  
Ansan Cultural Foundation